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28호

### 스포츠인권연구소 칼럼

**장미란 차관 임명, 스포츠영웅의 소비가 아니길**

이병호 스포츠인권연구소 학교체육통합팀

###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우상혁의 고공행진, 6년 만에 아시아육상선수권 정상제패**

박강수 한겨레기자

###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크리켓 대표팀, 항저우 아시안게임 못 가게 됐다**

이준희 한겨레기자

**승마협회, 항저우행 전세기 확보... '선수 1억원 부담' 없던 일로**

이의진 연합뉴스기자

###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전 세계 女 축구선수들 월드컵 맞아 '기후행동' 나선다**

한휘연 뉴시스기자

### 2024 파리 하계 올림픽

**도쿄 올림픽 '골판지 침대', 내년 파리 올림픽 선수촌도 다시 도입**

성규환 부산일보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장미란 차관 임명, 스포츠영웅의 소비가 아니길

스포츠인권연구소  
학교체육통합팀 이병호

- 메달리스트 장미란에서 체육행정가 장미란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 메달리스트의 문체부 2차관 임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도 메달리스트 장미란 교수(이하 장 차관)가 체육행정가인 차관으로도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스포츠영웅으로서의 기억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포츠영웅의 능력이 체육행정가의 능력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십 년간 체육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했던 많은 체육행정가와 정책전문가들, 그리고 체육 개혁에 이바지한 수많은 전문가가 즐비하다. 그런 전문가들을 뒤로하고 ‘스포츠영웅’ 장미란 차관이 임명된 것은 체육계에 대한 정치계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체육 분야에 이미지가 ‘스포츠영웅’으로 대변되는 시대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며 대리 경쟁으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수준이다. 그 이면에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학생선수의 낙오와 희생, 비교육적인 학교운동부의 육성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다. 가끔 사건과 사고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이다. 학생선수, 운동선수들이 특별하다는 방관자적 태도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학생선수, 운동선수는 특별하지 않다. 똑같은 학생이고 시민이다. 장미란 차관의 임명 또한 특별하게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 메달리스트의 능력은 체육행정가의 능력이 아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능력을 입증할만한 업적을 세워왔는가를 통해서이다. 새로 임명된 장 차관의 경우 그것이 아닌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의 이미지, 스포츠영웅으로서 보여준 능력 이외에 우리나라 체육 행정을 총괄할만한 능력을 보여준 바 없으므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일 스포츠영웅으로서 성공했듯이 차관으로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 명백한 ‘권위어의 오류’이다. 시장에서 상품을 팔 때 유명한 인기 연예인의 광고가 먹히듯 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막중한 문체부 2차관의 능력을 메달리스트라고 해서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체육 정책의 막중함을 그런 이미지 수준으로 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장 차관이 적어도 차관 직을 수행할 때만큼은 스포츠영웅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길 바란다. 잘하리라는 기대는 스포츠영웅 장미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 정책에 대한 올곧은 판단과 실천에 달려있다.

## 이미지를 벗고 올곧은 정책 판단으로 가주길

선수 시절 세계적인 역도 선수로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지만, 그 금메달의 여정에서 스쳐 지나갔을 수많은 중도 포기 학생선수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그들이 포기자가 되지 않을 정책을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금메달의 여정은 오로지 자신의 역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점철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 성공한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능력과 노력의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장 차관이 학위를 하고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 내내 우리나라 체육정책과 전문체육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칼럼이나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가장 걱정되는 바다. 장 차관이 ‘열심히’ 차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체육 정책의 전면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체육 정책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갖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전 정부의 최윤희 전 차관이 그랬듯이 정치적 이미지로 소비되는 차관이 되거나, 우리나라 체육 정책의 문제점을 방치한 차관이 될 수도 있다.

다음 장 계속

##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

장 차관은 역량 부족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지만, 운동선수일 때 답변과 다르지 않다. 차관이라는 막중한 직무에 걸맞은 체육행정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체육 정책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체육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 차관 스스로 학교운동부를 통해서 성장한 만큼 현재 학교운동부가 놓여있는 학생의 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 알 것이다. 과거 실업팀 선수로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체육계 화두를 던진 것 또한 공부에 대한 장 차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물론 아마추어와 프로는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운동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 학생선수들 공부할 수 있게

오랜 세월 학교운동부는 우리나라 전문체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왔지만, 학습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감수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학생선수의 정상적인 학습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대회출전으로 인한 인정 결석일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사실상 어렵고, 공부냐 운동이냐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운동에 선택해도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학생선수가 패배자가 된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래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려는 잠재된 스포츠천재들은 학교운동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학생선수라 하더라도 공부를 병행하는 정책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다.

우리나라 체육 정책의 총괄은 장 차관 자신처럼 성공한 메달리스트와 전문체육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도 포기 학생선수들, 그리고 대다수 일반학생, 나아가 모든 국민을 위한 체육 정책을 포함하는 일이다. 그런 시야에서 체육 정책을 펼쳐주길, 스포츠영웅이 아닌 제대로 일한 체육행정가로 자리매김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우상혁의 고공행진, 6년 만에 아시아육상선수권 정상 제패

우상혁(27·용인시청)이 6년 만에 아시아육상선수권 정상을 탈환했다.

우상혁은 15일(현지시각) 타이 방콕의 타이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8을 넘어 **우승했다**. 2m15에서 출발한 우상혁은 2m19, 2m23, 2m26, 2m28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1위를 확정된 뒤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인 2m33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로써 우상혁은 2017년 인도 부바네스워르 대회(2m30) 이후 6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챔피언에 올랐다.

올해 초 부비동염 수술과 발 부상 등으로 고생했던 우상혁은 차분히 상승궤도를 그려왔다. 5월6일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2위(2m27),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한 5월9일 예천 KBS배 우승(2m32), 5월21일 요코하마 골든 그랑프리 우승(2m29),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2위(2m30) 등 **고공행진**을 펼쳤고, 지난 봄 잠시 내렸던 세계육상연맹 랭킹 1위에도 복귀했다.

아시아선수권 직전 대회인 지난 2일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에서는 악천후에 가로막혀 첫 높이로 도전했던 2m16을 세 번 전부 넘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2주 새 훌훌 털어냈다. 우상혁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금메달의 기쁨을 전하면서 “오는 8월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크리켓 대표팀, 항저우아시안게임 못 가게 됐다

한국 크리켓 대표팀이 최근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두 크리켓협회 간 갈등 속에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기한을 넘긴 탓인데,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 책임론도 제기된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들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지난 11일 통보받았다. 지난달 24~25일 선발전을 치렀고 국가대표 30명을 선발해 27일 발표했지만, 대회 최종 엔트리 제출 일정을 맞추지 못한 탓이다.

원인은 협회 간 갈등이었다. 현재 한국에는 1993년 설립된 대한크리켓협회와 2019년 만들어진 한국크리켓협회가 있다. 두 협회는 2019년 대한체육회 가입을 신청했지만, 해당 종목 협회는 ‘유일한’ 단체여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으로 양쪽 모두 가입하지 못했다. 2023년 2월 해당 조항이 개정됐지만, 아직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두 협회는 대표팀 선발을 함께 진행했다. 애초 대한크리켓협회는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렀지만, 대한체육회가 한국크리켓협회와 함께 대표팀을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선발 조건을 두고 양쪽이 줄다리기를 벌였고, 일부 선수들은 3월에 대표팀에 뽑히고도 다시 한번 선발전을 치러야 했다.

김남기 대한크리켓협회 회장은 <한겨레>에 “우리 협회는 2011~2017년 대한체육회 소속이었다. 현재 국제크리켓협회(ICC)에 가입한 유일한 한국 협회”라며 “한국크리켓협회는 2017년 회장 선거에 불만이 있던 이들이 만든 단체로 우리를 휘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누가 봐도 어느 쪽이 정당성 있는 협회인지 아는 상황에서도,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방관했다”고 했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중 계파가 있는 조직은 한두곳이 아니다”라며 “양쪽이 직접 조정해야지, 대한체육회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한편 한국크리켓협회는 <한겨레>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 승마협회, 항저우행 전세기 확보... '선수 1억원 부담' 없던 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선수들에게 '1억원 자비 부담'을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승마협회가 말 수송비를 절감할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회 참가 비용을 절반 넘게 줄일 방안을 찾은 덕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될 전망이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승마협회는 최근 대한항공 등의 협조를 얻어 9월 중순 인천공항에서 항저우까지 화물 전세기로 이동하는 '임시 노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승마협회 관계자는 "항저우까지 직항하는 화물기를 빌리기로 대한항공 측과 협의했다"면서 "대한항공이 나서준 덕분에 말 수송비가 28만달러(약 3억5천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 날짜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늦어도 9월 중순에는 항저우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항저우로 직항하는 화물 노선이 없는데,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들이 협의 끝에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위한 '임시 노선'을 만들기로 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항공료에 수송 대행업체에 지불할 대금·인건비 등을 더한 총 파견 비용은 최대 6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본래 이번 대회 참가비는 최대 13억원으로 추산됐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독점 계약한 독일 대행사에 항공 수송을 일임해 전세기 없이 말을 옮기려면 유럽-항저우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돼 수송비가 8~9억원대로 늘어난 탓이다. 5억원대였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보다 배가 넘게 늘었으나, 항저우로 가는 하늘길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도 마땅치 않았다. 말 수송이 가능한 화물 항공편이 있는 상하이나 홍콩으로 말을 먼저 옮긴 후 육로로 항저우까지 이동하는 방안은 조직위가 검역을 이유로 불허했다. 협회는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선수들에게 최소 1억원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수들의 반발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력보다 돈'이 대표 선수 선발의 기준이 되는 모양새가 스포츠의 핵심인 공정의 가치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박서영 회장은 직접 그린 만화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선수들은 한국 승마의 꿈이고 미래지만 협회는 한국 승마의 현실을 지탱하기도 벅차다"라고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선발전을 통해 이미 출전권을 따낸 9명의 선수는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조건을 수용한 상태다.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대회가 1년 연기되기까지 해 5년을 기다려온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항저우행 비행편이 생겨 이들의 부담액도 2천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대회 기간 사룻값과 개별로 고용하는 말 관리사의 인건비는 자체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각종 부대 비용을 합치면 (부담액이) 2천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며 "선수들이 내는 몫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당시 자체 예산이 부족했던 협회는 5억원가량의 선수단 파견비를 적립금 등으로 어렵사리 마련했다.

이번에는 공적 기금 성격의 적립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파견비 일부를 지원해줄 후원사 후보를 찾아 협의 중"이라며 "여기에 경기력 향상비 등 대한체육회의 보조금도 보탬 것이다. 나머지 비용은 박 회장과 임원진이 나눠서 부담하려 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 女 축구선수들 월드컵 맞아 '기후행동' 나선다

NEWSIS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서 축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선수 주도 '기후 행동 이니셔티브'가 시작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국가대표 소피 용에-페데르센을 필두로 44명의 선수들이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해 기후 변화 관련 행동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했다.

페데르센은 덴마크 국가대표팀과 자기 소속팀인 유벤투스 FC 위민 동료들에게 기후 행동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지를 받아 이 아이디어를 영국 기후 관련 축구 비영리 단체인 풋볼포퓰처, 전 세계 축구계 인물들의 환경 운동 단체 커먼골 등에 공유했다.

이 단체들과 함께하는 이니셔티브는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선수들이 월드컵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선수들이 이용하는 항공편이 배출하는 탄소도 계산한다. 참여하는 선수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된 금액을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자연기금(WWF)이 운영하는 관련 프로젝트에 기부한다.

페데르센은 "월드컵이 긍정적인 환경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며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나는 그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항공 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기후 변화) 해결책은 없어도, 선수로서 모범을 보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국가대표이자 영국 첼시 FC 위민에서 뛰고 있는 제시 플레밍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플레밍은 "기후 행동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며 "팀 동료들과 내가 취하는 이 행동이 기후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플레밍은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팬들, 특히 젊은 축구 팬들에게 축구가 '중요한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 탄소 발자국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플레밍은 설명했다. 그는 "이 방법이 기후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이를 필두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국가대표이자 AS 로마 위민 소속의 엘레나 리나리는 "선수가 주도하는 일이라는 게 고무적이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리나리는 "모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월드컵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축구가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커먼골의 지속가능성·환경 책임자 제레미 휴신은 "점점 더 많은 선수, 코치, 클럽 소유주, 축구 행동가 심지어는 팬들마저도 스포츠의 모든 수준에서 환경 보호 활동과 이어질 지점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선수들이 기부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WWF의 코알라, 해안, 나무심기 프로젝트 등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 이니셔티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풋볼포퓰처에 연락해 참여할 수 있다.

# 도쿄올림픽 '골판지 침대' 내년 파리올림픽 선수촌도 다시 도입

2년 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화제가 됐던 '골판지 침대'가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선수촌에서도 사용된다.

16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 AFP 통신,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트더게임즈에 따르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 올림픽 침대 매트리스 공급 회사인 에어위브와 계약했다. 에어위브는 파리 올림픽 선수촌,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선수촌과 미디어빌리지 등 올림픽·패럴림픽 참가자들이 머무는 숙소에 침대와 매트리스 1만6000개를 내년 3월~6월 배송할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면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는 이 침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도쿄 올림픽에 처음으로 등장한 골판지 침대는 친환경 대회를 추구한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에어위브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 제작한 침대다.

침대 프레임을 골판지 재질로 설계하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깔았다. 당시 도쿄 올림픽 조직위는 폭 90cm, 길이 210cm 규모의 이 골판지 침대는 약 2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홍보. 그러나 당시 선수촌에 투숙한 각 나라 선수들은 나무가 아닌 종이 형태의 골판지가 과연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를 두고 여러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두 사람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골판지 침대를 '성(性)관계 방지' 침대로 조롱하는 선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야구대표 선수 9명은 한 명씩 숫자를 늘려가며 침대에 올라 무너뜨리기에 도전했다가 침대를 결국 박살 낸 뒤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골판지 침대가 안전하다며 여럿이 침대에 올라 폴짝폴짝 뛰어 침대 내구성을 직접 증명해 보이는 선수들도 있었다. 호주 여자하키 국가대표 레이철 린치는 자신을 포함해 5명의 대표팀 선수가 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또 아일랜드 체조 선수 리스 맥클레너건 역시 지난 19일 골판지 침대가 성관계 방지용 침대라는 건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침대 위에서 점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침대 제조사로는 달갑지 않은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다카오카 무토쿠니 에어위브 사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침대 공개 행사에서 직접 침대에 올라 '방방' 뛰면서 튼튼함을 강조했다. 다카오카 사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견고한 침대로, 메달을 딴 선수 3~4명이 침대에 올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골판지 침대도 2년 사이에 진화했다. 침대 매트리스는 머리와 어깨, 허리, 그리고 다리 세 부분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선수촌에 입촌하는 각 나라 선수는 먼저 전신 스캔과 사진 촬영을 하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키, 몸무게, 출전 종목을 고려해 선수에게 가장 알맞은 매트리스를 정해준다. 침대는 키 큰 선수들을 위해 220cm로 늘릴 수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71618110733198>



# 주간 스포츠 소식

강원도 춘천 女농구 코치, 사제지간 법정싸움 사연은?

<https://www.ajunews.com/view/20230712165443480>

'집단가혹+폭행' SSG 2군, 3년만 또다시... 재발방지 필요하다[초점]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3938>

'메시'는 남 이야기... '직업' 인정 못 받는 아르헨티나 여자 축구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5031300007?input=1195m>

국제사이클연맹, 사춘기 이후 성전환하면 여성부 출전 금지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6020100007?input=1195m>

"체포될 수도" 개최 불투명해진 '성소수자 올림픽'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71615475767788>

인천에 닥친 뜻밖의 변수 코로나... "컨디션 좋은 선수들로 꾸렸다"

<https://www.news1.kr/articles/5110413>

채은성, 생애 첫 올스타전 홈런레이스 우승... 한화 선수로 3번째

<https://www.news1.kr/articles/5109433>

SSG랜더스 퓨처스, 방망이로 후배 폭행한 선수 퇴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713580194>

"장애선수들 다양한 체험 기회 가장 큰 보람"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638>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